

“사유의 모험이 왕국을 짓는 약속의 땅”

책의 존재와 사물의 존재 6 글쓰기와 미메시스

김상환

연세대 교수·철학과

미메시스 또는 모방이란 말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술에 대한 서양인의 이해를 압축하는 말이고, 그런 만큼 가장 중요한 미학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개념을 맨 처음 본격적으로 철학에 도입한 사람은 플라톤이었다. 그러나 플라톤은 단지 예술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이 개념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가령 「크라틸로스」라는 대화편(383a 이하)에서 플라톤은 이 개념을 통하여 언어의 기원과 본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에게 언어의 문제를 대화의 주제로 제기한 크라틸로스는 그 자신이 독특한 언어관을 지니고 있었고, 후대에는 루소와 같은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크라틸로스에 따르면, 사물의 명칭과 이름은 사물의 본성(physis)과 일치하거나 그 본성을 반영하며, 그런 한에서 언어는 그 자체로 진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와 함께 이런 주장을 옆에서 듣고 있던 헤르모게네스는 이와 상반된 견해를 펴기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이름과 명칭은 사물의 본성에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합의한 규약(thesis)과 관계에서부터 유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름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견해는 당시에 유행하던 소피스트들의 언어관을 반영하며, 오늘날의 많은 언어학자들이 규약론자들임을 생각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견해일 것이다.

미메시스 언어론자들의 책 혐오사상

소크라테스는 이 두 견해를 듣고 난 뒤 먼저 크라틸로스를 옹호한다. 이를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아직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원초적 의사소통 상황을 가정해 본다. 아직 언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물을 남에게 알리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까? 아마 귀먹은 병어리처럼 손발이나 머리 같은 신체의 부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몸을 가지고 그 전달해야 할 사물의 특징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이다. 가령 키크고 가벼운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하늘로 쳐들어야 할 것이고, 무겁고 나즈막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손을 땅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또 말이 달려가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몸을 구부러서 말의 동작과 입모양을 흉내내어야 할 것이다.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사물의 명칭은 그러한 신체적 모방을 대신하기 위해서 처음 생겨났다. 언어는 마치 우리가 신체의 동작을 통해서 사물을 표현하고 전달할 때처럼 목소리와 음절을 가지고 사물의 형태와 그 특징을 흉내내는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가령 ‘r’라는 글자의 발음은 떨림과 운동의 형상을 모방하기에 적절하고 ‘i’라는 모음은 가볍거나 왕래하는 모습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반면, ‘ph’라는 마찰음은 ‘s’나 ‘z’와 더불어 공기를 들이마신다든지 어떤 것을 열망하는 형태를 모방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 점을 당시의 회랍어에 나오는 낱말들을 예로 하여 각각 상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d’와 ‘t’ 그리고 ‘l’과 ‘n’ 등 거의 모든 알파벳에 대해 이러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426 d 이하 참조).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최초의 언어는 모방의 기술에 탁월했던 장인이 목소리를 통해서 사물의 형태와 본성을 흉내내면서 만든 것이고, 그 원초적 낱말들로부터 여러가지 파생어와 복합어가 생겨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와 관습에 따라 여러가지 변형이 가해지기도 하고, 그 말들을 모방해서 새 말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 외중에 처음에 만들어진 그 시초의 말들은 이제 흔적으로만 남게 되었지만, 그 흔적을 통해서 다시 그 최초의 낱말들을 회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아름다운 말은 여전히 전적으로 또는 많은 면에서 사물들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말들이고 다시 말해서 사물들과 합치하는 말들이지. 그리고 가장 추한 말은 그것들과 반대되는 요소로 형성된 말들이고.”

그렇다면 크라틸로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언어는 사물의 본성과 일치하므로 어떤 이름을 아는 것은 곧 그에 해당하는 사물의 진리를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일까? 이 물음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회의적이다. 물론 언어를 통한 사물의 모방은 음악이나 그림을 통한 모방보다 우월한 점이 있다. 그 우월성은 음악이나 그림이 사물의 특수한 모습을 모방하는 반면 언어는 사물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을 모방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동그란 모습을 모방한다고 할 때, 그림은 동그란 모습의 어떤 개별적인 사물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동그라미라는 말은 최초로 동그란 사물들 일반의 공통된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언어 밖에서 찾으라고 말했다. 플라톤은 언어를 어떤 모방의 형식이라고 생각했다. 미메시스 개념에 기초한 언어관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 의하면, 책이란 진리의 시체 통조림이자 영혼을 망쳐놓는 흉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은 언어를 상징의 형식으로 이해하면서 책을 진리의 잔치마당으로 여긴다.



아리스토텔레스

성질을 모방하여 만들어졌다. 언어가 모방하는 것은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 본질이고, 바로 이 본질이란 다름아닌 학적 인식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낱말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지칭하는 것에 대한 어떤 참된 지식을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언어 또한 그림과 마찬가지로 어떤 모방의 산물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것이 표현하는 것은 사물의 진리 자체가 아니라 그 진리의 ‘이미지’(schema) 또는 그에 대한 환영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초로 언어가 만들어질 때 그 언어의 창시자가 신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그가 만들었던 낱말들이 사물들의 본성을 정확하게 반영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그 원초의 언어 역시 여하튼 어떤 모사물이고,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넘어서 수 없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따라서 크라틸로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일세. 배움을 얻어야 하는 것은 즉 말속에서가 아니라 사물들 자체에서임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말속에서가 아니라 사물속에서 실제로 앎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야.”

“언어가 모방이라면 책은 진리의 그림자”

이러한 가르침은 그러나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수정된다. 그것은 아

리스토텔레스가 크라틸로스처럼 낱말이 사물의 본성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히려 헤르모게네스처럼 낱말이 언어사용자들 간의 합의와 규약에서부터 유래한다고 보았다. 가령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서 「오르가논」의 일부를 이루는 「해석론」의 초두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는다. “이름은 규약에 따라(...) 특정한 사물을 의미하는 어떤 목소리이다.”(2장. 1) 그리고 이어서 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우리는 위에서 ‘규약에 따라’라고 말했다. 이는 낱말들이 전혀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낱말이란 기호가 되면서만이 어떤 사물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장. 3) 언어는 자연적 사물을 모방하고 흉내내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래서 자연에 속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언어는 최초로 ‘영혼의 상태’를 좇아 만들어졌다. “목소리를 통해서 발생되는 소리는 영혼의 상태에 대한 상징이며, 문자로 쓰여진 말은 목소리로 발화된 말들에 대한 상징이다.”(1장. 2) 언어의 유래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유명한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상징’이란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 언어란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모방의 형식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상징의 형식이고, 이 상

정의 형식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공동체의 관습과 규약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다면 상징이란 무엇인가? 이 말은 원래 희랍에서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표지”를 의미했고, 희랍어 사전을 펴보면 그 유래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한 사물을 둘로 쪼개서 두 사람이 각각 그 반쪽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이 양가의 사람들이 후일 그 두 쪽을 맞추어 보고 서로를 알아 볼 뿐만 아니라 예전의 약속에 따라 환대했는데, 바로 그런 약속의 표지로 쓰인 것이 상징, 즉 symbolon이었다. 상징이란 희랍말은 그래서 “서로 대어 맞추어 보다”라는 뜻의 동사 symballein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 동사는 서로 합치고 결합한다는 포괄적인 뜻을 담고 있고, 그밖에 합을 만든다는 뜻도 담고 있다. 만일 이 동사의 접두어를 빼고 단지 그 어간만을 취한다면 ballein이 남는데, 이 동사는 원래 던진다는 뜻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무엇을 던져 넣거나 던져서 쓰러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오르가는」의 상징론

여기서부터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모방과 비교하면서 생각해볼도록 하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어를 모방의 형식이 아니라 상징의 형식으로 이해한 것은 그것이 자연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말이란 즉 오로지 기호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기호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일단 대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며, 자신과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기호란 그것이 지시하도록 정해진 어떤 의미 대상에 대하여 또는 그 대상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다른 것을 위한 기호가 된다는 것은 그 두 가지의 것이 같이 던져져서 합쳐진다는 것이고, 양자가 서로 결합되어 단일한 지시작용의 양면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 중복된 두께 속에 놓임으로써 그 기호에 해당하는 사물은 상징성을 획득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징이란 말은 애당초 서로 합쳐보고 더해 본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어원적 의미에 해당하는 합침과 결합이 그러므로 상징적 기호가 성립하기 위한 최초의 조건일 것이다.

이 때 상징한다는 것은 모방한다는 것과 전

혀 다른 것이면서도 같은 점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공동체의 관습과 규범을 따른다면 상징적 관계에 놓인 두 사물은 모방 관계에 놓인 두 사물처럼 어떤 유사성이나 친밀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는 뜨거운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란 색을 사용한다든지, 부드러운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각이 많은 도형을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기호는 그것이 상징하는 대상과 최소한의 유사속성이나 유비관계를 지녀야 한다. 희랍적 어원에서 심볼이 반으로 쪼갠다가 나중에 맞추어 보는 물건이었음을 생각할 때, 상징적 관계에 있는 두 사물이 서로 맞물리거나 합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두 사물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합쳐지고 결합되기 이전에, 그 양자는 먼저 쪼개져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합쳐지기 이전에 각기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 상징과 모방의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모방은 모방되는 것에 합치하고 유사해지려는 노력을 말하지만, 그 모방이 아무리 탁월해진다 해도 여전히 모방에 불과하며, 그래서 원본에 대한 어떤 결합과 전적인 의존성을 그 본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플라톤이 크라틸로스에게 모방의 근본적 한계에 대해서 역설하는 대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이미지는 그것이 이미지기 위해서 원본을 완전하게 재생할 수 없는 노릇이지.” 왜 그런가? 만일 이미지가 원본을 모든 면에서 그대로 똑같이 재현해서 양자 간에 어떠한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면, 거기에는 하나의 원본과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원본이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모방의 결과로서의 이미지는 원본과의 유사성을 보다 많이 지닐수록 완전해지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 원본과의 차이성 자체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 자기 속에 그 차이를 지을 때, 이미지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파산하게 된다. 그 차이가 그 이미지의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때 차이란 결여와 열등의 간격일 뿐이다. 플라톤에게 모방적 사물은 원본과의 존재론적 불균형과 차이 속에서만 어떤 사물로서 존재하며 또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과 차이는 상징적 관계에 있는 두 사물 사이에서는 사라져버린다. 상징이

란 말의 어원적 유래가 암시되는 것처럼, 그 사물들은 각각 동등한 계약관계에 있는 두 가족에 속해 있다. 그 양쪽 편은 각각 다른 집안과 계약할 수 있었고, 또 그 계약과 상관없이 다른 가족과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상대의 도움과 서로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옛날 심볼을 만들어서 나누어 가진 것은 동맹을 맺는 것이었고, 그래서 서로를 보호하고 환대하기 위함이었다. 마찬가지로 상징적 관계에 있는 두 사물은 각기 다른 곳에서부터 유래하지만, 혼자서 보완할 수 없는 결함을 상대의 도움과 보충을 통해서 메꾸어간다. 혼자서 지킬 수 없었던 자신의 본성을 보존할 수 있게 되고, 혼자서 나설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책은 사유의 ‘제2의 고향’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성언어가 영혼의 상태에 대한 상징이라 했고, 문자언어는 음성언어에 대한 상징이라 했다. 영혼과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이 삼자가 어떤 동시적인 상징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 삼자가 존재론적으로 서로 다른 층위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협조와 안내에 힘입어 자신의 단점을 보충하고, 타향의 장소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영혼의 내면은 음성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외면화시킬 수 있고, 그 표현의 공간 속에 타인의 영혼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 음성언어의 상징기호인 문자언어 속에서 또 다시 환영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 더 큰 명중성을 얻을 수 있고, 더 오래 외면에서 거주할 수 있고, 더 먼 곳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플라톤처럼 이 삼자의 관계를 모방의 관계로서 이해한다면, 이러한 보완과 확장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영혼의 상태는 그것을 모방하는 음성언어 속에서 결여를 얻고, 음성언어의 이미지는 다시 그것을 모방하는 문자언어에 의하여 또 한번 결여를 얻어서, 마침내 책 속에서는 살아 있는 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

플라톤이 책을 진리가 죽어 있는 모습으로 생각한 것은 언어의 유래와 발생 과정을 모방적 파생의 순서로 이해했기 때문이고, 이 순서를 이루는 각각의 단계를 존재론적 이질화와 퇴화의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소크

라테스가 크라틸로스에게 진리를 찾되 언어를 버리거나 언어 밖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모두 그러한 미메시스 개념에 기초한 언어관 때문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을 비롯한 언어에 대한 탐구를 모든 학문적 탐구의 근간에 두었다. 모든 진리 탐구는 언어학적 규칙의 규제와 그 안내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또 진리에 대한 사유가 언어학적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비로소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르가는」을 저술했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또 그것이 언어를 플라톤적 의미의 미메시스나 아니라 상징의 형식으로 이해한 것과 하나를 이루는 생각이다. 언어가 상징의 형식이라는 것은 그것이 내면적 의식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떤 대립적인 외면이 아니고 더 이상 어떤 이방의 영역이 아님을 말한다. 언어가 조성하고 있는 그 기호의 공간은 의식의 잠재력이 도움과 안내를 받아가며 머물 수 있는 친밀한 연대와 우방의 지대로 이해된다. 의식의 왕국과 음성의 나라는 문자의 왕국과 더불어 동맹의 관계에 있다. 다시 비유하자면, 의식의 내면은 문자언어의 배움 속에서 혼자서 갈 수 없는 곳을 여행할 수 있고, 자신의 체질로서만 버틸 수 없는 광활한 영토에서 자신의 거주 가능성을 확장해 갈 수 있다.

이때 책이란 그러므로 무엇이 될 것인가? 책이란 말하자면 진리에 대한 사유가 문자로부터 환대받는 곳이 될 것이며, 풍요한 잔치의 즐거움과 긴 여정의 계획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서적의 세계는 사유가 자신의 출생지를 떠나 정착하는 제2의 고향이 될 것이며, 개혁과 모험을 통해서 도시와 왕국을 남기는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